

신년인사



친애하는 전국의 상하수도가족 여러분!

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낸 만큼 우리 모두에게 丁亥年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. 맑은 물처럼 투명하고 흐르는 물처럼 민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수자원은 이제 원유에 견줄 만한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세계 각국은 이미 물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, 물 시장 개방 등 많은 과제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.

이런 상황에서 2002년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'물 산업 선진국, 대한민국'을 목표로 물 산업 분야의 전문기관화와 수돗물 불신해소,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'미래비전 2015'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.

2007년 올해는 '미래비전 2015'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입니다. 상하수도가족 여러분 모두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'창의 시정'의 기치를 살려 많은 준비와 노력 끝에 탄생된 '미래비전 2015'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丁亥年 새해, 상하수도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, 국가적 대업을 수행하는 우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더욱 성장하여 물 산업을 이끄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

2007년 새이침을 열며
한국상하수도협회장
서울특별시장 오명훈